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6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135:1-3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25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30번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한 주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감사하며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이며 교회이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상황과 조건에 놀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세상에 보이고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빌립보서 2:12-18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구원을 이루는 삶”

- 봉 헌(offering) ..... 3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217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오후 2:30분에 합동임원회로 모입니다.

###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

## <말씀묵상> 빌립보서 2:12-18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12-16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으며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바울의 진정한 자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16-18절) 나의 자랑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는 구원과 직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생명과 그 외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 해도 중도에 포기하면 결승점에 이를 수 없는 육상경기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 현재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마지막 구원의 종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지기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우리의 거룩한 목표요 구원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의 결과가 거룩함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 나타나는 식상함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허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